제1강.
키케로, 『노년에 관하여』

1장

1. 키케로가 앗티쿠스(Titus Pomponius Atticus)에게,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이 책을 바침. 앗티쿠스는 아테나이에서 별명뿐 아니라, 문화와 지혜도 들여옴(앗티케의 중심 도시 아테나이에 20년 체류했음). 하지만 시국이 우울함을 줄 수도 있음(기원전 44년 카이사르 암살 직전임).

2. 우리에게 틀림없이 다가올 공통의 짐인 노년을 가볍게 만들고 싶어서임. 이 글을 쓰는 작업은 노년을 편안하고 즐거운 것으로까지 만들어주었음. **철학(philosophia, 지혜에 대한 사랑)에 복종하는 자는 인생의 모든 시기를 괴로움 없이 보낼 수 있음.**

3. 티토노스(새벽의 여신 에오스의 애인)를 시켜서 말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큰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대(大) 카토(기원전 234~169, 감찰관 카토)를 주인공으로 기용했음. 라일리우스(〈우정에 관하여〉의 대화상대자)와 소 스키피오(기원전 185~129, 대 스키피오236~183의 입양 손자)가 그를 찾아간 것으로 설정했음. 대 카토는 노년에 그리스 문학 열심히 공부했음.

2장

4. S. 대부분의 사람은 노년을 아이트나 산보다 더 무거운 짐으로 여김.

C. **자기 안에, 훌륭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수단을 갖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시기가 힘겨운 법.** 자신에게서 좋은 것을 구하는 사람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를 불행으로 보지 않음. 모두들 노년에 도달하고 싶어 하면서도, 노년에 도달하면 그것을 비난함. 시간은 늘 같은 것임. 팔십 년 아니라, 팔백 년을 살아도 노년은 부담스러운 것이 될 터임.

5. 그가 지혜로운 것(대 카토의 별명은 sapiens임)은 자연을 최선의 지도자로 삼아 복종하기 때문임. 자연이 인생을 멋진 드라마로 만들고는, 노년이라는 마지막 막을 소홀히 했다고는 믿을 수 없음. 그것은 종결이 필요하고, 열매가 꼭지에서 떨어지려는 순간과 같음. 자연에 대항하는 것은 신에게 대항하는 것과 같음.

6. L. 어떻게 하면 노년을 쉽게 견딜지 가르침을 청함. (이 다음 내용은 플라톤 〈국가〉 1권 초반을 모방한 것임)

3장

7. C. 카토의 동료들은 노년에 대해 불평하고 있음. 감각적 쾌락을 즐길 수 없다고, 쾌락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플라톤 〈고르기아스〉에 같은 주장 나옴), 이제는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고 멸시한다고. 하지만 이런 불평을 하지 않는 노인도 많이 있음. 쾌락의 사슬에서 풀려난 것을 기뻐함. 멸시도 받지

않음. 불평하는 것은 성격 탓임. **늙어서도 절제할 줄 알고 까다롭지 않고 퉁명스럽지 않으면 노년을 잘 견딜 수 있음. 무례하고 퉁명스러우면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이 괴로움.**

8. L. 당신이 돈, 재산,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노년이 견디기 쉬운 것이라고, 그것은 소수나 누리는 행운이라고 반론 가능함.

C. 일리 있는 반론이지만 전적으로 옳지는 않음. 어떤 세리포스 사람이 테미스토클레스(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해전의 지도자)에게, 당신이 아테나이 출신이라서 유명해진 거라고 공격한 것과 비슷함. -**너무 가난하면 현자라도 노년을 견디기 어렵겠지만, 재물이 많아도 어리석으면 노년은 짐스러움.**

9. 노년을 향한 최선의 무기는 학문을 닦고 미덕을 실천하는 것임. 덕을 잘 가꾸면 긴 세월 뒤에 놀라운 결실을 가져다 줌.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음, **훌륭하게 살았다는 의식과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기억이 가장 즐거운 것임.**

4장

10. 카토는 젊었을 때, 타렌툼을 탈환한 퀸투스 막시무스(지연전술 Cunctator Fabius, 기원전 285~203)를 좋아했음. 그는 위엄 있으면서도 상냥했음, 노년에도 성격이 달라지지 않았음. 카토는 병사로서 그의 지휘를 받았음. 그는 노령에도 킹키우스 법(기원전 204년, 변호사 보수 상한제)을 지지했음. 엔니우스(기원전 239~169)도 그의 지연전술을 찬양했음.

11. 그가 타렌툼을 탈환했을 때, 그 도시를 빼앗겼던 살리나토르가 자신의 기여를 자랑하자, '당신이 도시를 잃지 않았다면 나도 탈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응수했음.

평화시에도 기여가 큰 분이었음. 호민관 가이우스 플라미니우스가 피케눔과 갈리아 땅을 대중에게 배분하자는 것에 반대했음(기원전 232). 복점관일 때도, 나라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 최선의 전조라고 주장했음.

12. 뛰어난 아들의 죽음도 절제 있게 받아들였음. 공인으로서도, 개인사에서도 탁월했음. 대화와 교훈 주는 데 뛰어났음, 책을 많이 읽고, 전쟁사 모두 기억했음. 그분이 떠나고 나서는 가르침을 줄 사람이 없었음.

5장

13. 그러한 노년이 비참하지 않다는 걸 보이려고 길게 얘기했음. 이런 활동적인 분들의 사례 말고도, 조용하고 순수, 우아하게 보낸 인생의 평온하고 부드러운 노년도 있음. -플라톤(기원전 427~347)은 저술활동을 하다가 81세에 떠났음. 이소크라테스(기원전 436~338)는 94세에 〈판아테나이코스〉 쓰고 5년 더 살았음. 고르기아스(기원전 485~380)는 107세까지 공부했음. 자신은 노년에 대해 불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음.

14. 무지한 자들이 자기들의 악덕과 과오를 노년에게 떠넘기는 것임. 엔니우스는 자신의 노년을 경주에서 우승한 준마의 노년에 견주고 있음. 그는 70세에도 가난과 노령을 즐기듯 짊어졌음.

15. 노년이 비참해 보이는 이유는 네 가지임.

1) 노년은 우리를 활동할 수 없게 만듦.

2) 노년은 우리 몸을 허약하게 함.

3) 노년은 거의 모든 쾌락을 앗아감.

4) 노년은 죽음과 가까움.

6장

1) 노년은 활동할 수 없게 함.

젊음과 체력이 필요한 활동이라면 맞는 말임. 정신력으로 할 수 있는 노년의 활동이 있음. 루키우스 파울루스(마케도니아 정복자, 소 스키피오를 낳은 아버지)나 파브리키우스(기원전 280~279, 퓌르로스와 협상함) 등은 노령에 조언과 권위로 나라를 수호했음.

16. 압피우스 클라우디우스(기원전 312 감찰관, 307, 296 집정관, 압피우스 수로, 압피우스 가도의 건설자)는 노년에 실명까지 했지만, 퓌르로스와의 휴전에 반대했음.

17. 노년에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자들은, 키잡이가 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큰일은 체력보다는 계획과 명망, 판단력으로 이루어짐. -노년이 될수록 더욱 늘어가는 자질임.

18. 카토 자신은 더는 전쟁에 나가지 않지만, 원로원에 조언하고 있음. 카르타고에도 선전포고해두고 있음. 그 도시가 파괴될 때까지 의혹을 거두지 않을 것임.

19. 카토가, 소 스키피오를 위해 조부의 위업을 완수하도록 신들이 미뤄 주시기를 기원함.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소 스키피오가 기원전 149년 3차 포이니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파괴함.) 대 스키피오도 오래 사셨다 해도 불평 없었을 것임.(대 스키피오는 53세에 의문의 죽음을 당했음. 대 카토는 사실 그의 정적이었음.) -노인들의 이런 자질 때문에 최고회의체를 원로원Senatus이라고 부름.

20. 스파르타 인들도 최고 관직 수행자들을 원로들(gerontes, gerusia, 30명으로 구성)이라고 불렀고, 실제로 노인들이었음. 역사 속의 위대한 나라들이 대개 젊은이에 의해 전복되고, 노인들에 의해 지탱되고 회복되었음. 젊은이들은 경솔하고, 분별력은 늙어가면서 생기는 법임.

7장

21. 기억력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훈련하지 않거나 날 때부터 아둔하다면 그럴 수도 있음. 하지만 테미스토클레스는 시민 이름을 모두 외웠음. 카토 역시 각 사람의 조상까지 모두 기억함. -비문을 읽고 기억을 되살림. 노인들이 보물 숨긴 곳이나, 법정 출두일, 채무 문제를 잊는 일은 없음.

22. 나이 많은 법률가, 사제, 철학자 많음. 열성과 관심만 있으면 지적 능력은 그대로 남아있음. 소포클레스는 고령이 되도록 비극을 썼음. 아들들이 재산권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자, 최근에 쓴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를 낭독하여 승리했음.

23. 다른 시인과 철학자들도 늙도록 학구열이 지속되었음.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시모니데스, 스테시코로스, 퓌타고라스, 데모크리토스, 크세노크라테스, 제논, 클레안테스, 스토아 철학자 디오게네스(기원전 155 로마 방문, 사실은 카토가 추방함.) 등.

24. 보통 사람 중에도 사비니 농부들은 해마다의 수확에 관심을 가짐. 자기가 1년 안에 죽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음. 자기가 이익을 보지 못할 과수 농사에도 노력을 기울임. -스타티우스의

희극에 나옴.

25.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불사의 신들을 위해서임. 신들께서, 그가 이런 일을 조상에게 물려받아 후손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셨음.

8장

스타티우스는, '노년은 우리에게 보고 싶지 않은 많은 일도 가져다 준다'는 구절도 만들었음. 하지만 노인이 되면 원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될 것임. 스타티우스의 시구 중, '노년이 비참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성가신 존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은 옳지 않음.

26. 노년은 성가신 게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 현명한 노인은 훌륭한 자질을 타고난 젊은이들을 보고 좋아하고, 그들에게서 존경과 사랑을 받아 노년이 더욱 수월해짐. 젊은이들도 덕을 닦도록 이끌어주는 노인들의 지도를 좋아함. 노년도 바쁘고, 언제나 무언가 실천함.-물론 지난 날에 기울인 노력에 상응해서 그러함.

새로운 지식을 더하는 사람들도 있음. 솔론이 시구에서 그렇게 말함. 카토 역시 노년에 그리스어를 배웠고, 그래서 이런 구절을 알게 되었음. 자신이, 소크라테스도 현악기를 열심히 배웠다는 말을 듣고, 그리스어 배우기를 시도했음.

9장

17. 2) 노년은 허약하다.

카토는 젊어서도 힘이 아쉽지 않았고, 지금도 젊은이의 체력이 아쉽지 않음. 크로토나의 레슬링 선수 밀론은 늙어서 자신의 팔 힘이 약해진 것을 슬퍼했음. 하지만 입법가들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음. 죽을 때까지 법률에 해박했음.

28. 카토 자신은 노년이 되면 웅변가로서의 능률이 떨어질까 두렵긴 함. -그것은 허파와 체력에도 달려 있음. 일반적으로 노년에도 목소리가 광채를 더함. 노인에게 적합한 것은 조용하고 차분한 연설임. 침착하고 부드러운 연설이 대중의 호감의 삼. 젊은이들에게 전수할 수도 있음. -노년에 젊은이들에 둘러싸이는 것은 즐거운 일임.

29. 젊은이를 가르치고 훈련시킬 능력이 노년에게 있음. -기원전 212 스페인에서 전사한, 대 스키피오의 아버지와 큰아버지, 소 스키피오의 친조부(기원전 216 칸나이 전투에서 전사)와 양조부(대 스키피오)를 예로 듦. 연로하여 기력이 떨어져도 고귀한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들은 행복함.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노년 탓이라기보다 젊었을 적 방탕 때문인 경우가 많음. 젊어서 절제하지 못하면 늙어서 허약함.

30. 페르시아 왕 퀴로스도 늙어서까지 강건했다고 함(크세노폰의 〈퀴로스의 교육〉). 루키우스 메텔루스도 그랬음.

10장

31. 〈일리아스〉의 네스토르도 3세대 째를 보고 있었지만, 감미롭게 연설했음. 아가멤논도, 아이아스 같은 사람 말고, 네스토르 같은 장수가 10명이기를 바랐음.

32. 카토는 지금 84세지만, 이전 같은 체력은 없어도, 원로원과 연단에서 힘없지 않음. '오래 노인이고 싶으면 일찍 노인이 되라'는 속담에 동의하지 않음. 때가 되기 전에 노인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잠시 노인이고 싶음. 자신은 누구의 면담도 거절하지 않음.

33. 힘 센 것으로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더 탁월하지는 않음. 우리는, 소를 지고 걸었다는 밀론의 체력보다 퓌타고라스의 정신력을 더욱 원함.

힘이 있으면 사용하는 게 좋음. 하지만 없다고 아쉬울 것도 없음. 지나간 시절을 아쉬워할 것도 없음. 자연의 길은 한 번만 가게 되어 있음. 각 단계에 고유한 특성이 있음. 소년은 허약함, 청년은 저돌적, 장년은 위엄 있음, 노년은 원숙함. 제철에만 거둘 수 있는 자연의 결실과 같음.

34. 대 스키피오의 친구인, 누미디아 왕 마시닛사는 지금 90세지만 여전히 왕의 업무를 처리함. 걷기 시작했으면 말 타지 않고, 말을 탔으면 내리지 않음. 비 내리고 추워도 모자 쓰지 않음. 노년에도 훈련과 절제로 체력 유지할 수 있음.

11장

체력이 딸려도 노년에게 체력을 요구할 일이 없음. 체력 없이는 할 수 없는 공공 봉사는 면제됨.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요구하지 않음.

35. 많은 노인이 사실 허약한데, 그것은 노년의 특징이 아니라 나쁜 건강 상태의 공통 약점임. 소 스키피오의 양아버지도 건강이 좋지 않았음. -건강했다면 나라의 빛이 되었을 것임. 따라서 노인이 허약한 것은 호들갑 떨 필요 없음. 노년의 약점을 근면으로 벌충해야 함.

36. 적당한 운동이 필요함. 체력을 강화할 정도의 음식 섭취 필요함. 몸만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도 돌보아야 함. 기름을 대주지 않으면 등불이 꺼지듯, 정신도 노년이 되면 꺼지기 마련임. 육체는 힘든 운동으로 무거워지지만, **정신은 활동을 통해 가벼워짐**. 노인이 귀가 여리고 건망증 심하고 무기력한 것은, 노년 일반이 아니라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의 약점임. 뻔뻔함과 격정이 모든 젊은이가 아니라 불량한 젊은이의 특징인 것처럼, 노망도 모든 노인이 아니라 경솔한 노인의 특징임.

37. 압피우스는 눈멀고 늙어서도 대가족을 통솔했음. 노예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자식들은 존경하고, 모두가 그를 사랑했음. 그의 집은 선조의 관습과 규율이 지배했음.

38. 노년이 자기와 자기 권리를 지키고,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 영역을 지배한다면 존경스러움. 카토는, 노인 같은 데가 있는 젊은이도, **젊은이 같은 데가 있는 노인**도 좋아함. 노력하는 자에게, 육체는 늙어도 정신은 그렇지 않음.

카토는 지금 책을 집필 중임. 고대 기록을 수집하고, 자신의 지난 날 변호연설을 정리하고 있음. 법을 연구하고, 그리스 문학도 공부하고 있음. 기억력 훈련을 위해 퓌타고라스 학파의 방식을 따르고 있음. -저녁이 되면, 낮에 행한 일을 모두 떠올려봄. 법률자문도 하고, 원로원에서 법안도 발의함. 이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숙고해보는 것도 즐거운 일임.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은 언제 노령이 다가오는지 알지 못함. 인생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노년으로 넘어감. 갑자기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두고 꺼져감.

12장

39. 3) 노년에는 감각적 쾌락이 없다.

세월은 젊은 시절의 가장 큰 약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줌. 타렌툼의 아르퀴타스의 연설이 있음. “쾌락보다 치명적인 역병은 없다.” 사람을 맹목적으로 부추김.

40. 조국에 대한 배신, 국가 전복, 적과의 내통이 여기서 생김. 모든 범죄도 여기서 생김. 자연은 인간에게 정신보다 더 고귀한 것을 주지 않았음. 한데 이 선물에 쾌락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없음.

41. 욕망이 지배하는 곳에 자제력이 없음. 쾌락의 영역에 미덕이 설 자리 없음. 쾌락에 빠지면 이성과 사고는 불가능함. **쾌락이 너무 강하고, 너무 오래 지속되면 정신의 빛은 꺼지고 맘.**

-네아르코스에 따르면 플라톤도 타렌툼에서 이 말을 함께 들었다고 함.

42. 이성과 지혜로도 쾌락을 거부할 수 없다면, 노년은 욕망을 품지 않게 하니 감사할 일임. 쾌락은 숙고를 방해하고, 이성에 적대적이며, 마음 눈을 멀게 하고, 미덕과 함께하지 않음.

카토가 루키우스 플라미니우스를 원로원에서 제명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임.-창녀의 부탁을 받고 죄수를 목 베었음. -수치스럽고 타락한 욕망임. 게다가 국가의 명령권을 모독한 것임.

13장

43. 파브리키우스가 사절로 퓌르로스의 진영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임. - 아테나이에서 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에피쿠로스, 기원전 341~271)이 쾌락이 모든 행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임. 마리우스 쿠리우스 등은, 퓌르로스가 그 교리를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논평했음.-더 쉽게 정복될 것임.

이들은, 자신들 안에 본래부터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있으며, 그것들은 그 자체를 위해 추구되는데, 훌륭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쾌락을 경멸하고 그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음.

44. 노년에 쾌락을 그다지 바라지 않는 것은 비난 받을 일이 아니라, 칭찬 받아 마땅함. 노년에는 과식도 과음도 없기 때문에, 주정, 소화불량, 불면증이 없음. 노년에도 절제 있는 회식은 가능함. 해전에서 페니키아 인들을 이긴 누엘리우스는 회식 후에 횃불과 피리가 수행하여 귀가하는 것을 즐김.

45. 카토의 동아리 친구들은 퀴벨레 숭배를 함께 즐김. 검소한 식사지만, 점차 세월이 가면서 흥이 식어감. 식도락보다는 친구와의 만남과 대화가 즐거움. 선조들이 회식을 ‘함께 살기convivium’이라고 한 것은 적절함. 그리스 식으로 함께 마시기symposion, 함께 먹기syndeipnon보다 더 적절함.

14장

46. 카토는 대화를 좋아함. 오후 회식도 즐김. 대화 욕구를 늘려주고, 음식 욕구를 줄여준 노년에 감사함.

그렇다고 쾌락에 선전포고하는 것은 아님. 노년에도 음식의 쾌감에 완전히 무감각해지지는 않음. 선조들의 관습과 절차에 따라 술 따르고 대화하는 것은 좋음. 여름에 시원한 것, 겨울에 따듯한 것도 좋음. 자신은 사비니 땅에서 그런 모임을 계속하고 있음. 밤늦게까지 여러 주제를 논의함.

47. 노인들은 쾌락을 바라지 않으므로, 고통도 당하지 않음. 소포클레스가 성적 욕구에 대해 한 말도 그것임. 아쉽지 않으면 결핍도 없음. 결핍 없는 게 더 즐거운 일임.

48. 젊은이가 더 많이 즐기지만, 그것은 사소한 것임. 노년에도 상당히 즐길 수 있음. 연극에서 먼 자리 사람도 즐기는 것처럼 성적인 쾌락도 마찬가지임.

49. 마음이 성욕과 야망, 투쟁, 적대감, 온갖 욕망의 전역을 다 치르고 자신에게 돌아가, 자신과 사는 것은 대단한 일임. 마음이 학문과 연구에서 영양을 섭취한다면, 한가한 노년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음. 가이우스 갈루스는 죽기까지 하늘과 대지를 측량했음. 일식과 월식을 예고하면서 즐거워했음.

50. 명석함을 요구하는 연구에 전념하는 것도 즐거움. 나이비우스의 〈포이니 전쟁〉, 플라우투스, 리비우스(그리스 포로 출신 3세기 작가) 등이 그러함.

학구열은, 현명하고 잘 훈련된 사람에게는 나이와 더불어 자라남. 이러한 정신적 쾌락보다 더 큰 쾌락은 없음.

15장

51. 노년에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농경의 즐거움이 있음. 현인의 삶에 가장 잘 어울림. 대지와 거래하는 것임. 대지는 자신이 받은 것에 때로는 적은 이자를 붙여서, 대개는 높은 이자를 붙여서 돌려줌.

결실뿐 아니라, 대지의 힘과 본성도 즐길 수 있음. 대지는 씨앗을 받아서 처음에는 감춤. 그 후 포옹의 열기로 데워 잎을 틔우게 함. 줄기 위에 서 있다가 어른이 되면 외피에 싸이고, 이삭이 드러나면 까끄라기로 울타리를 두름.

52. 포도 재배의 즐거움도 있음. 작은 씨에서 우람한 줄기를 만드는 힘이 있음. 포도줄기 밑을 받쳐주면 덩굴로 껴안고 자람. 전지가 필요하게 됨.

53. 포도송이의 성장. 농부가 할 일들. 퇴비의 유용성.

54. 헤시오도스는 퇴비에 대해 말하지 않았음. 카토가 〈농사에 관하여〉에 언급했음. 〈오뒷세이아〉에는 나옴. 즐거움을 주는 여러 농사일. 접붙이기보다 더 창의적인 것은 없음.

16장

55. 농경의 즐거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즐거움. 노년에도 결점이 있는데, 수다스러워진다는 점임. 마니우스 쿠리우스도 그러했음. 그의 시골집은 검소와 절제가 있었음. 삼니움인들이 금덩이를 가져왔지만 그는 거절했음. 황금을 가지는 것보다, 황금 가진 자들을 지배하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고 말했음.

56. 당시에 원로원 의원들, 즉 노인들은 시골에 살았음. 킹킨나투스도 밭 갈다가 부름을 받았음(기원전 458 독재관). 쿠리우스도 그랬음. 그들을 부르러 오는 사람을 '여행자viator'라고 불렀음.

농부 생활보다 더 행복한 생활은 없음. 전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임. 인간을 부양하고 신들을 공경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공급함. 쾌락과 화해해서 말하자면, 유능하고 부지런한 농부의 저장고는 식량으로 가득함. 채소밭과 사냥도 있음.

57. 목초지와 과수원, 농토보다 유용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음. 노년은 그것을 즐기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음. 그곳에서 햇빛과 화롯불로 몸을 데우고, 그늘과 개울에서 건강하게 더위를 식힐 수 있음.

58. 운동이나 훈련은 다른 이에게 주어버려도 괜찮음. 주사위 놀이 정도로 만족함. 노년은 그런 것 없이도 행복함.

17장

59. 크세노폰의 저서들이 유용하니 열심히 읽는 게 좋음. 〈가정론〉에서 농사를 찬양했음. 농사가 왕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고 했음. 거기서 소크라테스와 크리토불로스가 다음과 같이 대화함.

소(小) 퀴로스는 스파르타 장군 뤼산드로스(기원전 ?~395)의 방문을 받아, 선물을 전달받고는 나무 심은 들판을 보여주었음. 그 자신이 측량, 배열하고 스스로 심은 것임. 뤼산드로스는 그가 행운과 미덕을 겸비했다고 칭송함.

60. 이런 행운은 노후에도 즐길 수 있음. 노령 마지막까지 즐길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농사짓기임. 코르비누스는 나이 들어서 농사를 시작했고, 100살까지 농사지었음. 첫 집정관이 되고부터 46년 만에 여섯 번째로 다시 집정관이 되었음. 말년이 중년보다 행복했음. 명망은 높아지고 수고는 줄었음.

61. 명망은 노년의 더없는 영광임. 명망 높던 인물들. 이들은 발언할 때뿐 아니라, 고개를 끄덕일 때도 권위가 있었음. 권위는 높은 관직을 지내고 노년이 되어야 생기는 것임. 청년기의 감각적 쾌락보다 더 값진 것임.

18장

62. 여기서 칭송하는 노년은, 젊었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놓은 노년임. 자기 변호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노년은 불행한 것임. **백발이나 주름살로 갑자기 권위가 생기는 것은 아님. 권위는 명예롭게 보낸 세월의 마지막 결실임.**

63. 사소한 것도 노인의 명예를 의미함. 아침 인사, 방문 받음, 길 양보 받음, 사람들이 일어서는 것, 호위 받는 것, 조언을 부탁 받는 것 등. 외국에서도 도덕 수준이 높을수록 더 잘 지켜짐. 스파르타가 그런 곳임. 아테나이에서 노인이 극장에 가자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지만, 스파르타 사절들 곁으로 가자 그들이 일어나 앉기를 권했다고 함.

64.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박수를 쳤음. 그러나 아테나이 인들은 옳은 일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음. 복점관 조합에는 좋은 관습이 많음. 연장자가 먼저 발언권을 가지는 것도 그 중 하나임. 나이 많은 사람이 지위 높은 자들보다, 명령권자보다 더 우대 받음. 육체적 쾌락은 권위라는 특권에 견줄 바가 못 됨. 이 특권을 멋지게 사용한 사람은 인생이란 연극에서 제 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임.

65. 흔히 노인은 고집이 세고, 불안해하고, 화를 잘 내고, 괴팍스럽다고 함. 인색함도 있음. -이것은 성격상의 결함이지 노년의 결함이 아님. 이 결함에 대한 변명거리도 있음.-노인들은 자신들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한다고 생각해서임. 또 몸이 허약해지면 사소한 공격도 싫어짐.

이런 결함은 좋은 성품과 교육에 의해 개선될 수 있음. 테렌티우스의 희극 〈형제들〉에서 두 사람의 성격이 다른 것을 보면 알 수 있음. 세월이 지난다고 모든 포도주가 시큼해지는 것은 아님. **노년의 엄격함은 옳지만, 절제가 있어야 함. 가혹하면 안 됨.**

66. **노년의 탐욕은 아무 의미도 없음. 나그넷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노자를 더 마련하는 것처럼 어**

리석은 일임.

19장

4) 노년은 죽음에서 멀지 않다.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임. 그토록 오래 살았으면 죽음은 무시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함. **죽음이 영혼을 완전히 없앤다면 죽음은 무시하는 게 마땅함. 죽음이 영혼을 영생할 곳으로 이끈다면 죽음은 바람직한 것임.** 제3의 가능성은 없음.

67. 사후에 불행이 없거나 행복하다면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음. 젊은 사람도 그날 저녁까지 살아있을지는 확실치 않음. 그 나이에는 사고사의 위험이 노인보다 더 큼. 젊은이는 더 쉽게 병들고 더 심하게 앓고, 낫기 더 힘듦. 그들 중 소수만이 노년에 다다름. 노년까지 가야 더 훌륭하고 현명하게 살 수 있음. 노인이 없다면 국가도 존재할 수 없음.

죽음은 젊은이도 공유한 부담임.

68. 죽음은 나이를 가리지 않음. 카토의 아들도 일찍 죽었음. 소 스키피오의 형제들도 그랬음. 젊은이가 노인보다 더 오래 살 것이라는 희망은 현명치 못함. 불확실하고 참이 아님.

노인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하겠지만, 젊은이보다는 형편이 더 나음. 젊은이가 바라는 것을 노인은 벌써 얻었음. 젊은이는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노인은 이미 오래 살았음.

69. 타르텟소스의 가데스에서 아르간토니오스는 80년 통치하고 120년 살았다 함. 하지만 무엇이건 끝이 있는 것은 길게 느껴지지 않음. 그 끝이 오면 지나간 것은 이미 사라져버렸으니까. **남은 것은 미덕과 올바른 행동으로 이룬 것뿐임. 시간은 흐르고, 과거는 돌아오지 않으며, 미래는 불확실함.** 주어진 수명에 만족해야 함.

70. 배우는 막마다 등장할 필요 없음. 어느 막에서든 박수를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함. 현인도 박수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음. 짧은 수명이라도 훌륭하고 명예롭게 살기에는 충분함.

수명이 길어도 슬퍼할 필요는 없음. 봄이 가고 여름과 가을이 왔다고 해서 농부가 슬플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임. **봄은 청춘의 계절이고 다가올 결실을 약속함. 다른 계절은 결실을 베고 거두기에 적합함.**

71. 노년의 결실은 이전에 이룩한 선에 대해 회상할 것이 많다는 점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무엇이든 선으로 간주되어야 함. 노인이 죽는 것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일임. 젊은이의 죽음은 자연이 저항함. 마치 강한 불이 많은 물에 꺼지는 것 같음. 노인의 죽음은 불이 다 타서 저절로 꺼지는 것 같음. 과일이 설익으면 따기에 힘들지만, 농익으면 저절로 떨어짐. 젊은이에게서는 폭력이, 노인에게서는 완숙이 목숨을 앗아감. 완숙은 즐거움. 오랜 항해 끝에 항구에 들어가는 것 같음.

20장

72. 노년의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음. 임무를 능히 수행할 수 있고 죽음을 무시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살 권리가 있음. **노인은 죽음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대담하고 용감해짐.** 솔론도 페이시스트라토스에게, 노년을 믿고서 대담하게 반대할 수 있었음.

정신이 온전하고 감각이 손상되지 않은 가운데 자연이 자기 작품을 해체할 때, 삶은 가장 훌륭하게 종결됨. 짧은 여생에 너무 집착해도 안 되지만, 까닭 없이 포기해서도 안 됨.

73. 퓌타고라스는 신의 명령 없이 삶의 초소를 이탈하는 것을 금지했음. 솔론은 자기가 죽으면 친구들이 애도해 주기를 원했으나, 엔니우스가 자기 죽음에 곡하지 말하라고 한 것이 더 훌륭함. 영생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한 것임.

74. 죽음에 대한 느낌은 아주 잠깐 동안일 것임. 사후에는 그런 느낌이 없거나, 아니면 즐거운 기분이 될 것임. 죽음을 무시하려면 젊어서부터 이런 신념을 품고 있어야 함. 그런 신념 없이는 마음의 평화도 없음.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은 확실함. 그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마음이 굳건할 수 없음.

75. 조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죽은 루키우스 브루투스, 자살하기 위해 말에 박차를 가한 두 분 데키우스, 적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처형당하러 돌아간 마르쿠스 아틸리우스 등의 사례. 로마 군단은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흔쾌히 당당히 행군했음. 교육 받지 못한 시골 병사들도 경멸하는 것을 현명한 노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옳지 않음.

76. 하는 일이 싫증나면 인생에도 싫증이 남. 노년이 되면 소년, 중년의 관심사에 대한 관심이 사라짐. 노년의 관심사가 있지만 결국 그것도 사라지게 됨. 그렇게 되면 죽을 때가 된 것임.

21장

77.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죽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됨. 지금 대화하고 있는 두 젊은이의 아버지들도 참된 의미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임. 우리가 육체의 틀에 갇힌 동안에는 피할 길 없는 과제를 수행해야 함. 하늘에서 유래한 영혼이 본성에 맞지 않는 지상에 묻힌 셈임. 신들이 인간의 영혼을 육체에 심은 것은, 하늘의 질서를 관찰하고 절제 있고 일관된 삶의 방식을 통해 그 질서를 본받는 수호자가 되라는 뜻이었음. 자신의 이런 믿음은 이성과 토론, 그리고 위대한 철학자들의 명망과 권위 덕분임.

78. '이탈리아 철학자들'이라고 불린 퓌타고라스와 그 학파 사람들은 인간 영혼이 신적인 우주 정신에서 유래했다고 믿었음. 소크라테스도 생애 마지막 날 영혼불멸에 대해 논의했음. 영혼의 기민함, 과거에 대한 기억력, 미래에 대한 선견지명, 예술과 지식, 발명을 보면, 영혼의 본성은 소멸하지 않음. 영혼은 항상 움직이지만 어떤 동인도 갖지 않음. 저절로 움직임. 그 움직임은 끝이 없음. 영혼의 본성은 단일함. 따라서 나눠지지 않고 소멸하지 않음. 나면서부터 대부분의 것을 알고 있음.-아이들이 어려운 과목을 배우고 빨리 이해한다는 것이 그 증거임. 상기하는 것으로 보임. 플라톤의 가르침임.

22장

79. 〈퀴로스의 교육〉에서 대 퀴로스는 죽으며 아들들에게, 자신의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고 강조했음. 살아서도 영혼은 보이지 않음. 행동을 보면 육신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죽어서도 마찬가지임.

80. 죽은 자의 영혼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들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그 명예가 유지됨. 영혼은 육신의 혼합물로부터 해방되어 순수해지고 온전해져야 지혜로워짐. 육신의 요소는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분명함. 모두 출발지로 돌아감. 영혼만은 죽기 전에도, 죽은 뒤에도 눈에 보이지 않음.

81. 잠만큼 죽음에 가까운 것은 없음. 잠들었을 때 영혼은 신성을 가장 분명히 드러냄. 그때 영혼은

여러 미래사를 볼 수 있음. 이것을 보면 영혼이 육신의 사슬에서 해방될 때 어떤 상태일지 알 수 있음. 따라서 그[키로스]를 신으로 공경할 것. 혹시 영혼이 육체와 함께 죽더라도, 우주를 보존하고 지배하는 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에 대한 기억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간직할 것.

23장

82. 옛 위인들은 후세가 자기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여겨서 그런 위업을 시도한 것임. 카토 역시 자기 명성이 인생과 동시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힘든 일을 수행하지 않았을 것임. 차라리 고생을 벗어나 한가롭고 조용한 세월을 보내는 게 나았을 것임. 하지만 그의 영혼은 미래를 내다보았음. 이 삶을 떠나야 진정한 삶이 시작될 것처럼. 영혼이 불멸하지 않는다면, 가장 훌륭한 이들의 영혼은 불멸의 영광을 얻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을 것임.

83. **가장 현명한 자는 평온한 마음으로 죽지만, 가장 어리석은 자는 마지못해 죽음.** 더 많이 더 멀리 보는 영혼은 자신이 더 나은 곳으로 간다는 것을 보고 있음. 시력이 무딘 영혼은 그것을 보지 못함. 카토는 존경하는 선인들을 만날 열망에 들떠 있음. 자신이 읽은 글의 저자들도 보고 싶음. 일단 출발하면 누구도 뒤로 잡아끌거나, 끊여서 회춘시킬 수 없을 것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도 사양함. 결승선에서 다시 출발점으로 소환되는 것임.

84. 삶은 노고임. 삶에는 이점이 있지만 물릴 때가 올 것임. 삶을 후회하지는 않음. 헛되이 태어난 것이라 여기지도 않음. 하지만 자연이 준 것은 임시 거처이지 거주할 곳이 아님. 이 혼잡하고 혼탁한 세상을 떠나 신과 같은 영혼들의 공동체로 출발하는 날은 영광스러울 것임. 일찍 죽은 아들도 볼 수 있을 것임. 내가 그의 죽음을 견딘 것은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지 않으리라는 믿음에서 위안을 얻었기 때문임.

85. 그래서 노년은 카토에게 가볍고 즐겁기까지 한 것이 되었음. 영혼불멸의 믿음이 실수라면 기꺼이 실수하고 싶음. 즐거움을 주는 이 실수를 죽기까지 빼앗기고 싶지 않음. 죽은 뒤에 감각이 없어진다면, 남들이 이 실수를 비웃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음. 불멸의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적절한 때에 죽는 게 바람직함. 자연은 삶에도 한계를 정해 놓았음. 두 젊은이도 이런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될 것임.